



s i r e n s

유 은



모든 생명체들에게서는 나선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DNA, 덩굴식물, 고동껍질, 뱀의 피부,…….

나선의 형태를 생명에 국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나선형의 창발성은 행위들의 반복과 마주쳤을 때 거대한 규모의 팽창과 가속을 가능하게 한다.

태풍의 이동, 놀이터에 자리한 나선형 미끄럼틀,
청계천에 놓인 <스프링> 조형물, 나선형 교차로 등.

나선형의 꼬인 형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양을 압축하기도 용이하다. DNA 실가닥은 꼬일 수 있을 만큼 꼬임으로써 초소형 세포핵 안에 응축된다. 무작위로 엉켜 보이는 DNA는 언제든지 자가 복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

영킴 속 질서가 만들어내는 무한생장의 가능성은
경이롭기도,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하다.

창발하는 사건들, 이를 마주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몸의 매커니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나’는 그저 그것을 보고, 듣고, 말고, 먹고, 느끼며, 흐느끼고, 역겨워 하고, 웃고, 즐기고, 분노하며, 마주하고, 회피하고, 개입하고, 방치한다. 그런 난잡한 것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는 그 속에서 나뉘는 질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떠올린 것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꼬인 선들의 형태들로부터 나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꼬임의 출발점을 찾아 내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원점을 찾아 나서는 순간 출발의 출발, 그 출발의 출발점을 찾아 헤매는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여정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현재 영킴 혹은 얽힘으로 감각되는 기억들의 꼬리를 물어 가며 삶의 실타래를 있는 그대로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에 가까울 지 모르겠다.

i 가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살아내고 있다고 믿었던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 ‘삶다운 삶’이라 여겼던 지면의 테두리가 순식간에 뜯겼다. 이후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태 등 일련의 젠더 관련 사건들은 i 자신이 명백하게 ‘여성’임을 알아차리게 했다. i 의 분노는 비균질적이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독 **래디컬**하게 분노했다. 그녀는 특히 지금까지 친밀하다 여겼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버린 날을 세웠다. 친분을 쌓았던 한 사회운동 집단으로부터 떠났다. 하게 분노했고 침잠했다. 폭발,

잠깐의 마비.

i 가 독립한 지 10년이 넘어간다. i 에게 있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차츰 분명해진다. 머리와 몸이 동기화되는 데 걸리는 시차들로 인해 너저분한 일상을 보내는 날들도 적잖다. 다행인 것은 일상에서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적신호를 포착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다:

1. 방 안에만 있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이 지속된다.
2. 혼술을 하다 취해 잠든다.
3. 배달음식을 시킨다. 특히 마라샹궈와 버섯 껌바로우를 시켜 입에 욱여 넣듯 먹고 있다면 명백한 적신호다.
4. 바닥 청소를 하지 않아 밤비의 모래와 털들이 쌓이거나 밤비가 토한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다.
5. 집안의 식물들이 메마른 잎을 떨군다.
6. 책상이나 싱크대 등에 빈 공간이 적어진다.
7. 화장실 바닥에 녹이 생긴다.
8. 모르는 사이에 두피의 각질을 뜯는다.

일상의 적신호들을 명확히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위 7가지 현상을 모두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지하고서 포스트일에 “정리정돈, CLEANING”을 써 책상에 놓인 스탠드 커버 위에 붙인 날은 아마도 추석 당일이었을 것이다. 할머니께 추석에 꼭 뵈러 가겠다고 했던 계획과 달리, i 는 추석 내내 책상 앞에 앉아 해야 하는 대학원 과제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발제문을 정리해야 했다.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아야 했다. 하지만 i 도 안다. 그것들이 순전히 핑계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i 는 밖에서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굳이 떠올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현재의 자신을 잘 이루어 살고 싶었다.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누적되어 왔던 불안정함이 i 의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일종의 정신분석학적 언어를 부정하고 싶었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남근주의적 언어에 기대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귀속된 채 현재를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매년 두 차례씩 찾아오는 한국의 대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햇수가 점차 쌓여가고 있다. 언제부터였던가. 아마도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된 후, i 가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때부터였을 거다.

생물학적으로 i 보다 2년 먼저 지정성별 남성으로 태어난 iv와, iii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사건 때문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말과 함께, 이를 비정상적인 남성들이 행한 특수한 사건으로 한정 지으려 애를 썼다. 자위적이고 기만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iv가 그리던 그림에서 재현한 여성의 몸들이 떠올랐다. 비대한 가슴과 엉덩이, 노출된 살들. iii은 TV에 여성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재단했다. 재는 코를 했네, 화장이 부담스럽네, 허벅지가 튼실하네. i 는 불쾌해졌고, 식사를 다 마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은 i 의 행동을 비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i 는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iv는 방문을 열고 문간에 서서 i 를 비난하며 “메갈,” “정신병” 등을 운운했다. i 와 iv의 말다툼이 심해지는 와중에 iii은 i 에게 행주를 던졌다. ii는 그만하라며 소리쳤다. iv는 i 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i 는 그 자리에서 본가를 나왔다. 다행인 것은 i 에게 도망칠 수 있는 i 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였다. 거기서 오롯이 홀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위안과 동시에 i 에게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1년 정도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 기존에 살던 공간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해야 할 즈음이 되었을 때 ii iii과의 관계는 구렁이 담 넘듯 회복했다. 어떠한 사과나 당시를 돌아보는 대화를 나누는 틈 없이. 그들의 관계는 늘 그랬다. 어떤 것에 주체할 수 없는 짜증과 온갖 분노, 미운 감정들을 눈물과 때리기와 던지기 등으로 표출하고서는 다음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같이 밥을 먹고 피식하는 웃음으로 넘겼다.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밤새 술을 마시고 화장실과 길가에서 잠드는 날들, 괴상하고 불편한 옷을 꺼입고서 험테로 여성성을 드러내려 애쓰던 날들이 있었다. 술에 낭만과 슬픔을, 수치심을 적셨다. 분칠과 치장으로 내부의 흉을 숨겼다. 주체와 자유를 도구삼아 걸면을 꾸몄다.

i 는 이혼가정에서 자랐다. iii는 생부이고 ii는 i 가 초등학교 1-2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함께 살았다. 영유아기에 대한 기억은 파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데 각 파편들마다 장소가 다르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iii가 엄마(생모)를 때렸대”라고 말하는 장면(이때는 아마 i 가 iii와 생모가 같이 살았을 거다), 개 두 마리가 함께 있었던 생모의 엄마 집, 여성 노인이 함께 있었던 iii의 첫째 형제 집, 생모의 집, iii의 친구 집, ii의 동생 집 등. 다양한 집들에 맡겨진 i 는 이 유 모를 호의와 각기 다른 형태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존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특정한 이미지가 i 에게 자리잡힌 것은 iii과 ii, ii의 엄마인 영월, iv, 이렇게 다섯이 함께 살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다. 영월은 iii과 ii가 맞벌이하는 동안 i 와 iv를 돌보아 달라는 ii의 요청에 따라 공주에서 하시던 개인 장사를 접고 왔다. 영월과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함께 살았다. ii와 iii에 의하면 당시 i 는 “질질 짜고, 예민한” 아이였다. “OO한 아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여정은 i 에게 있어 평생에 걸쳐 벌여야 하는 내적 투쟁의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와 별개로 ii는 i 에게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라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i 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i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생모가 i와 iv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 후 i는 그녀의 생모와 몇 번 정도 집 앞 놀이터에서 만났다. 당시 생모와의 만남은 가족에게 비밀이었다. 놀이터에서 생모와 같이 있던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다. 그러다 겁에 질려 우는 i와, ii와 ii의 형제들이 고향을 지르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 이후로 생모는 더이상 i에게 없는 존재가 되었다. i는 어렸을 적 iii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 iii은 종종 생모를 의부증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다. 싸우는 날이 평화로운 날보다 많아져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iii은 생모의 선택들에 대해 본인이 납득할 수 없었던 지점들을 간간히 덧붙이기도 했다. iii은 ii를 만나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좋다고 했다.

i와 iv의 관계는 뭐랄까. i에게는 iv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과 무탈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현재로서 i는 iv에 대해 궁금한 것도,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전무하다. 이 차가운 응어리가 i로 하여금 다른 관계들에 있어 어떤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iv는 i와 같이 어릴 적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추측건대, 그 시절의 i와 iv는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i는 i대로 '예민한' 기질을 내세워 모든 것들을 뾰족하게 마주하며 성장했다. 종종 iv의 팔에 얼룩덜룩 명이 남도록 꼬집어 분을 풀기도 했다. iv는, i를 때렸다.

2020년 코로나 시기, i 는 대안 교육기관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곳은 ‘적녹보 패러다임’이라는 명칭 아래서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노동, 생태,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는 곳이었다. 강사들은 대부분 시스젠더 남성이었고 맑스의 계보를 중시하는 환원주의적인 경향이 종종 느껴지기도 했지만, i 는 뇌가 저리도록 글을 읽고 이해하고 사유하는 시간이 그 자체로 좋았다.

어느 날 기관에서 믿고 의지하던 한 강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즉시 퇴출되었다. 기관은 사건을 기점으로 분열했다. 기관은 사건을 기점으로 분열했다. 집단 문화를 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이들과 휴학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 한 발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 등. i 는 성급한 적극성을 들이밀며 집단 문화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했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혔고 무기력을 마주했다. 집단을 떠났다.

또 다시 잠깐의 마비.

2020년 갈등 이후 두 차례 i 는 iv를 마주한 적이 있다. 그 날 이후 i 와 iv는 ii iii을 따로따로 만났다. 특히 i 는 iv가 없는 날 본가에 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i 는 그것을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 iii와 ii 혹은 iii와 iv의 생각은 달랐던 거 같다. iv와의 첫 번째 마주침은 i 의 생일에 일어났다. i 는 ii의 초대를 받아 본가에서 생일 맞이했다. 밥을 먹은 후 쉬는 와중에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iv였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 상자를 들고는 iii와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i 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

두 번째 마주침은 1년 정도가 지나고서 었을 거다. i 는 ii의 초대로 쉬는 날 본가에 갔다. 이번에는 iv가 먼저 와 있었다. i 는 자신의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i 의 당황스러움과 분노, 원망이 섞인 표정을 본 ii는 “나도 몰랐어”라고 했다. 이 날은 넷이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iii와 iv는 어떤 대화와 킬킬거림을 이어갔다. i 는 불현듯 화를 냈다. 그러자 iii는 “다 나가”라며 식탁 의자를 던졌다. ii는 iii를 말렸고, i 와 iv는 밖으로 나가 근처 벤치에 앉았다. iv는 i 에게 ii와 iii를 가스라이팅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가족처럼 지낼 수 없냐고 했다. ii와 iii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했다. i 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했고 기이하다고 느꼈다. 더 있고 싶지 않았다. i 는 웃으며 iv에게 화해하고 싶어서 온 거냐고 했고, 그럼 그냥 좋게 끝내자고 하며 기괴한 대화를 마쳤다. i 와 iv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다같이 마저 식사를 했고,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 화목하게, 가족처럼. 다음날 i 는 ii와 iii, iv와 인사를 나누고 i 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i 는 본가에 가지 않았다.

세상을 허락하고 세상에 물어 보라

처음은 본다

본능감이 일어난다

나를 달인 내가 달인 당신들에게 내릴지 못했던 본능으로 도해한다

그것 못이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김을 띠었어?

너는 왜 도사처럼 겉에서 내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내렸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흐름이 거대한지. 눈시울이 붉게 물든다

물도 맑음을 뛰어내려 나의 중얼거림을 잠시 멈춘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처음을 마주한다

당신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내가 향했던 천공의 이면을

당신들은 흔쾌스럽게 마주해야 해

당신들이 아직도 봉합한 실 틈에서 새어나오는

천공과 그물을 난 줄에 닿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내가 아픔을 좌우의 상극을 자주 나타내곤 했다 예민하고 쉽게 짜증

을 부린다고 했다 예민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못이도 되는 건가 그냥 때릴 이

유가 필요했던 거잖아 거북처럼 지내라고 일상을 나누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

라고 일상을 나누는 대화의 틈에 내가 잊기는 했어 내 말이 잘못 선택에서 나

는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언제부터인가 차한 차비정상적인 것 마냥 공중

감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내가 언제부터인가의

시점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해했 그 시기를 통해 그럴까 한 번 사

건이 붙지 않던 때 제이름을 이사를 두고서 나는 겹을 받아다가 큰 감동을 취했

던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전 내가 당신들의 거북 구상

원의 가장 밑에 자리하게 된 순간부터였다 허공 밖의 '거북'과 '거북'을

거북이 수행하지 않았던 나는 종종되지 않는 유망을 끊임없이 갈구하던 나는

당신들에게 있어 늘 버리고 불면엔 때려서라도 갈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점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은 그 물의 강변을 화려하게 지냈다 그러다 문득 흙이

위치를 휘두르는 강변이 나의 오만한 표정과 비리 말들이 불현듯 스쳤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야 하는 순간이 예상치 못할 때 돌아다녔다 그러

다 그 순간들이 꽃피는 듯 하면 음향에게 전하기 왔다

음향은 요즘 무슨 일 있니? 우리 가족에게 서민하게 살고 있는지

그냥 이직하지 할 게 없애. 집에는 언제 왔는지 물어봐. 음. 잘 지내고 음

전혀를 끊는다

뿌리가 좀 있었나 싶으면 거기에 다시 깎듯이 고인다. 조금 있는 눈

썩 뿌리 품을 해마다가 새우를 허허 일어난다

누구나 그렇듯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다. i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ii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i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회사와 ii 사이에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iii는 ii의 재판을 보조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을 불안정하게 이어갔다. 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구들은 짐짝이 되어 좁아진 집 한켠을 뺨뺨하게 채웠다. 각종 문서와 누런 파일철들이 집 안 바닥 이곳저곳에 쌓여갔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갔다. ii는 패소했고, 그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했다. i는 공부하고자 했던 전공 대신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해 들어갔다.

헝클어뜨린 채 방치했던 관계의 실타래를 꺼내 본다. 실마리를 잡고서 한 올 한 올 풀어본다. 실 끝을 상상해보지만 여전히 그러지지 않는다. 일단 앞에 놓인 실마리에서 이어지는 실들부터 매듭을 새로 묶기 시작한다. i가 풀어내고자 하는, 동시에 매듭짓고자 하는 관계의 이름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명 이 난 건지 이 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벌어진 틈새로 꿩덩이가 흐르고 노란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꿩덩이가 둘러볼기 전에 또 다시 검붉고 질퍽고 축축한

영킨틸들이 영겨불은 채 불합한 자리는 하염없이 부르르고 짓눌러 갑니다 고장이 난 걸까요

녹슨 하수구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막으려 애쓰면 애 쓸수록 그저 비참해질 뿐이에요

가꾸려는 마음은 녹슨 돌기 앞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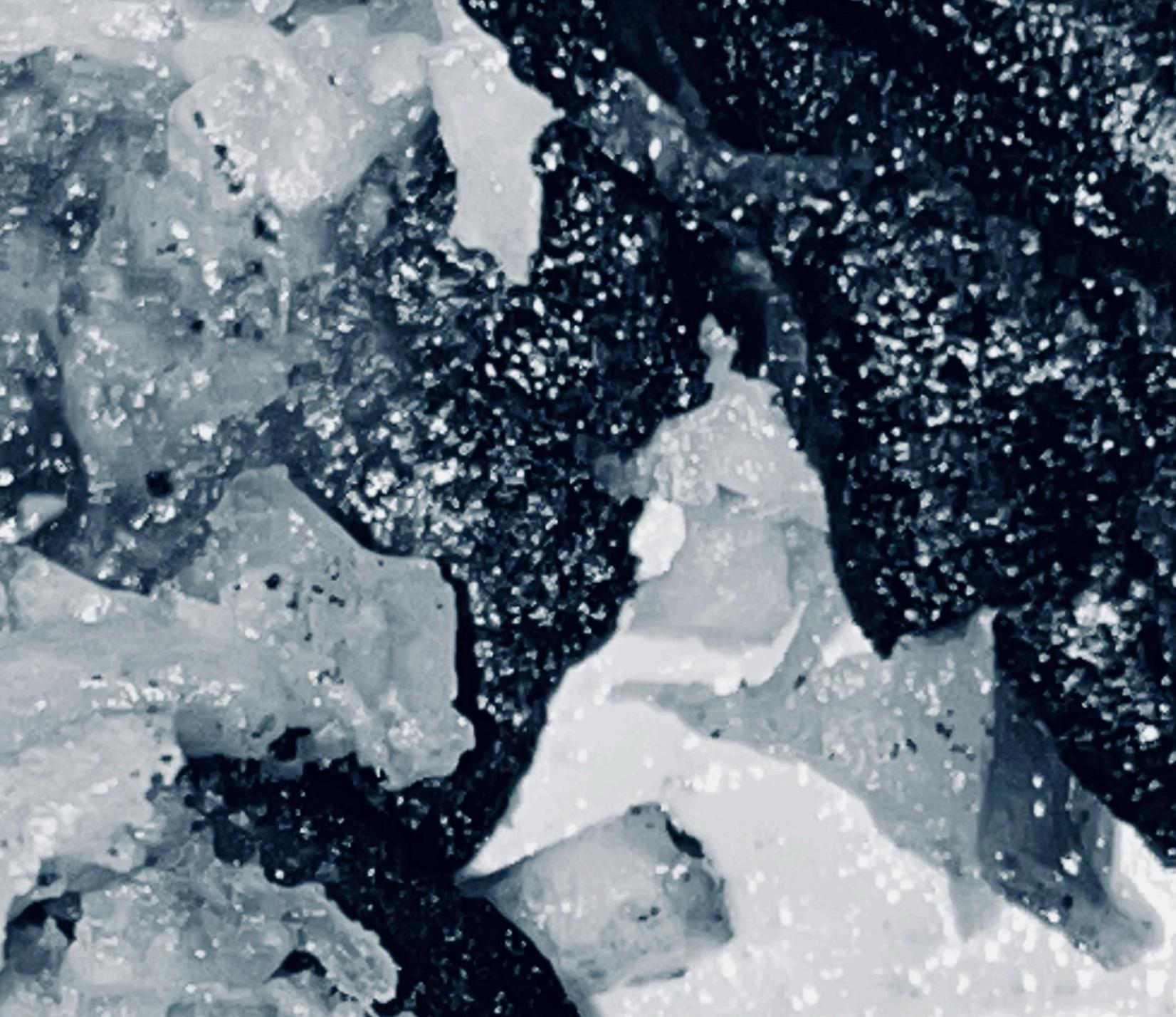
살가죽을 휘감은 채 물기는 진동하고 염분은 열기 설기 영겨 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 하고자 했던 게 많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 체는 도통 모르겠습니 다

i 를 마비시켰던 순간들의 독성은 시간이 지니며 서서히 몸
으로부터 빠져나갔다. i 는 몸을 일으켜 다시 움직이기 시
작한다. 말을 떼고, 무너진 조각들을 주워 새로이 쌓는다.
쌓기를 시도하다 다시 무너뜨리기를 반복한다.

아슬아슬하고 거칠고 모난 조각들, 흐느적거리고 끈적하고
비린내가 풍기는 조각들이 여전히 즐비하다. 왜 다시 이 조
각들을 짚으러 돌아 왔을까. 무엇을 마주하고, 무엇을 길어
올리고자 하는 걸까. 매듭짓지 못하고 끝난 것들에 대한 책
임을 져야겠다는 마음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내쉽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멈추었다가-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따뜻한 햇빛 한 줄기가 내려와
몸 구석구석을 비추며 온기로 어루만집니다.

발가락,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정강이, 무릎, 허벅지,
엉덩이, 골반, 등허리, 척추, 등 위쪽, 어깨, 손가락, 손등, 손
바닥, 손목, 팔목, 팔꿈치, 팔등, 배, 횡격막, 가슴, 폐, 쇄골,
목, 턱, 입술, 양볼, 코, 귀, 눈, 이마, 머리 -

이제 호흡하며 서서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느껴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서서히 눈을 뜹니다.

발톱,
발톱과 발끝의 살이 마주하는 틈,
발톱의 큐티클,
발가락에 난 털,
발가락들이 모여 발이 되는 순간인 지간,
지간을 덮은 살덩어리,
발바닥의 주름,
발등의 푸른 혈관,
발바닥 가장자리들의 굳은살과 각질,
발과 발목 사이의 관절,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
아킬레스건,
:
:
명명되지 않는 몸구석들이 꿈틀거린다.

배에는 두 개의 주름 선이 있다. 그 주름에는 텃줄을 끊고, 드러눕고, 뒤집고, 기고, 걸음마를 떼고, 앉고, 일어서고, 뒹굴던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다. 두 개의 주름 자락은 다른 주름들과 여타의 흔적을 잇는 궤적의 실타래가 된다. 실타래는 배꼽을 뚫고 내장의 주름으로 향한다. 삼킨 물질과 배설한 물질, 삼킨 말과 뱉은 말들이 내장의 주름과 구멍들을 넘나들며 울렁인다. 몸을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되어 파열된 채 남은 몸의 흔적들을 캐내며 그에 스민 서사를 하나 둘 살핀다.

왼쪽 발등 위에는 검푸른 반점 덩어리가 있다. 곰팡이가 핀 거 같기도, 씻지 않아 때가 묻은 거 같기도 하다. 자의와는 무관하게 몸에 새겨진 최초의 문신(文身)이다. 평상시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종종 발등의 흔적을 손으로 더듬거나, 오른발로 왼 발등을 포개어 가려보곤 한다. 검푸른 반점 덩어리는 몸 덩어리를 하나 둘 흡수해간다. 왼쪽 다리부터 서서히 빨아들인다. 골반을 지나 오른쪽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검푸른 반점은 상체를 먹기 시작한다. 세 개의 구멍을 지나 배꼽이 사라진다. 척추는 힘을 잃고 빠는 물경해진다. 어느덧 겨드랑이를 지나 팔의 관절들이 구멍 속으로 아득하게 사라진다. 손목과 손가락. 이제 목이 잠식된다. 왼쪽 발과 발등의 검푸른 점, 그 위에 얼굴만이 남았다. 턱뼈가 허물어지고 침이 잠시 고인다. 밤의 깊은 호수같다. 입과 볼과 코와 귀와 눈과 뇌가 차례로 발등의 반점에 잠식된다. 이제 머리카락털이 남았다. 발은 머리카락 털을 단 채 유유히 이주한다. 발이 떠난 자리에는 반투명의 질푸른 진액이 남는다. 발은 이름모를 덩불 한 칸에 자리를 잡는다.

몸의 중심을 어디로 삼을 수 있을까? 인간은 척추동물이니 척추를 중간으로 삼는 게 적합할까? 혹은 명치, 배꼽? 항문일까, 질일까, 요도일까? 인종과 턱? 숫구멍의 자리일까? 중심을 어디로 잡든 몸은 늘 자신의 비대칭성을 감각한다. 몸에서 기준을 찾는 것, 기준으로부터 어떤 대칭성을 찾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양 손바닥을 마주모았다가 책을 퍼듯 펼친다. 손바닥에 새겨진 빗금들을 따라간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구부린다. 더 자세히 마디와, 마디 사이의 털, 굽혔다 펴지는 관절의 모양새를 관찰한다. 오른손 약지는 왼손 약지보다 조금 더 중지를 향해 꺾여 있다. 오른손 중지에는 필기구를 오래도록 잡아 갈변한 살점이 마디와 마디의 뼈 사이에 물렁하게 놓여 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에는 깨진 유리조각의 흔적이 흉터로 남아 있다.

침을 삼킨다. 타액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간다. 타액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다. 시선을 옮긴다.

.....

근막과 림프의 유연함을 닮고 싶다.
근막의 내구성과 림프선의 여린 걸을 따라
몸을 거닐다 다시 길을 잃는다.

.....

말초신경계의 잔뿌리 끝은 어떤 모양일까?
잔뿌리는 피막을 뚫고 나온다.
뿌리들은 지면 곳곳에 자신의 촉수를 가져다 대고,
마주치는 자장에 따라 다르게 진동한다.

.....

다빈치

; 인본비례에서 정제된 작품들

다빈치 = 실라지 쓰기

엄한 관계 → 통 증 → 반 응

습진 (가려움, 짜증)
고름 (노란, 국소성 감염, 진물)
궤양 (쓰라림, 폭발)
멍울 (투명, 혹, 의혹, 불안)
출혈 (검붉음/검푸름, 봉합, 멍)
신경증 (예민반응)

주변 소리 → 신 호 → 반 응

검은 뿌리 아래로 주황빛의 털들과 회노란 빛의 털, 사이사이의 푸른 빛이 감돈다. 멍든 머리. 빠질 듯 빠지지 않는다. 빠질 거 같으면 다시 푸르게 덮어버리곤 한다. 푸르게 푸르게. 언제까지 푸른 멍을 달고 살 거야. 빠지기는 할까? 빼내도 될까. 멍은 몸의 일부로 남아 영롱하게 푸른 빛을 발한다. 멍든 털이 감싼 피부 가죽은 얼룩덜룩하다. 온도가 높아지는 날이 찾아지면 그만큼 붉은 기가 자주 올라온다. 열기에 익은 자리들이 군데군데 다른 형태로 놓여 있다. 태양 빛으로 그을려진 부위는 갈색의 크고 작은 반점들이 모여 있다.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붉은 돌기들은 끝을 희노랗게 물들인 채 어떤 방식으로 머문 자리부터 사라질 지 가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하얀 염증이 햇바닥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세 개의 염증이 남았다. 햇바닥의 붉음보다 선연한 붉은 빛으로 염증의 삼각형을 감싸고 있다. 발음은 어눌해지고, 침이 자주 고인다. 아린 혀끝은 식욕을 자극한다. 통증은 솔직한 욕망을 드러낸다.

먹고 싶다.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있니.”

“그럼요.”

나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많았어. 통증을 마주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해. 당신이 나를 보살펴준 것들보다 그 이전의 어떤 상흔들이 나를 짓이기는 순간들이 잦아지고 있어. 위태롭게 쓰라리기도 위태롭게 찬란한 마음들이 나를 감싸. 나는 어떤 짐승이 되어 가고 있는 걸까? 고결한 마음을 가져보고자 하는 허영심은 떠난 지 오래야. 사랑의 감정도, 시대의 이야기에 합류하고 싶은 의지도.

“밤비는 잘 있니.”

“잘 지내고 있죠.”

밤비의 배와 양 옆구리에는 털이 듽성듬성 빠져 있어. 중성화 수술 받은 이후에 그런 거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변명 삼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란 걸 알아. 내가 그를 봐 주지 않을 때, 쓰다듬지 않을 때,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면 그는 자신의 털을 뽑곤 해. 털을 뽑아내는 속도가 털이 자라는 속도보다 빨라 털들은 줄곧 자라다 말곤 해.

“잘 있니”와 “잘 있다” 사이에서 당신은 내게 어떤 말들을 건네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곤 했어?

나는 당신과 다른 게 참 많아. 나는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왔던 통증과 외로움들을 어떻게 감당했어?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상상이 잘 안 가. 그럼 더 잘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어떻게 상처를 더 줄까 궁리하고 있는 사람 같아. 어떻게 하면 더 내 상처를 잘 전달할까 만을 말이야.

부모 자식의 관계가 원만한, 사랑 받고 자란 누군가를 보면 종종 역겨움이 깃들어. 열등감이겠지. 이 고름들을 다 짜내고 나면 조금은 너그러워질까? 고름도 너무 짜내면 피가 고이고 더 흉이 지던데. 얼만큼 짜내고 비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끝을 생각하기엔 아직 들어찬 진물들이 내 시야를 흐려. 어쩌면 평생 진물 속에서 헤엄쳐야 하는 지도 모르겠어.

그게 바깥인지 안인지도 모르게 말이야. 허우적거림이 조금은 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는 순간들에 잠깐의 안정감을 느끼다가 다시 또 허우적대곤 해.



오늘 집에 있니?

이따가 일정이 있어서 나갈 예정이에요.

뭐 그렇게 바빠.

그러게, 벌려 놓은 게 많네. 조만간 집 한 번 갈게요.

오늘은 뭐하시나?

이따가 점심 즈음 나갈 예정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괜찮은데.

반찬 안 해다 주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지.

신경 쓰지 말고 너 볼 일 봐.

냉장고를 연다. 지난 밤에 산 식재료들과 4팩을 만 원에 세 일하는 틈에 산 반찬들이 있다.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반찬이 담겨 있던 스티로폼을 씻어 한 칸에 말려 둔다. ii의 반찬들이 들어갈 틈을 넉넉히 만들어 둔다. 검정 목폴라와 검정 셔츠, 검정 히트택 하의와 바지, 검정 양말을 신고, 회색 숏패딩을 꺼내 입는다.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선다.

서울역에 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중간까지만 가고 승객들을 내보낸다. 서울역까지 안 가냐 묻자, 버스가사는 집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며 지하철을 타라고 한다. 찾아보니 독립문역 인근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다행히 많이 늦지는 않았다. 서울역 1번 출구, 한화빌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과학방역,” “공권력”이라는 단어가 앞뒤에 새겨진 조끼를 걸친 채 흰 방역복 차림을 한 사람들과 빨간 상의를 입고 있는 이들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이 쓰여진 피켓들이 한 칸에 놓여져 있다. 맞은 편에는 흡연구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앰프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i는 카메라와 핸드폰 녹음기 어플을 켜다.

ii는 길을 나선다. 양손에는 지난밤에 한 반찬들과 최근에 담근 김치, 과일들을 눌러 담은 노란색 이마트 장바구니가 들려 있다. 지하철까지는 5분 거리이니 다행이다. ii는 어떤 옷과 외투를 걸치고 나왔을까? 장갑은 껴일까?

인천 끝에서 서울 서쪽 끝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나름의 요령으로 갈 만 하다. 공항철도를 타면 쉽게 간다고 하지만 ii에게는 어지럽기만 한 길이다. 여러 번 갈아타더라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경유해 가는 게 편하다. 부평역에서 한 번, 신도림역에서 한 번, 그리고 합정역에서 한 번.

ii는 지하철에서 내린다. 양손에 든 짐 때문에 개찰구를 찍고 나서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약간의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간다. 숨이 차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 도착한다. ii는 번호키를 올려 자신의 생년월일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집에 들어오니 고양이 밤비가 훌쩍 도망간다. 침대 이불로 들어가 숨는다. 문이 열린다. 집에 들어오니 고양이 밤비는 훌쩍 도망간다. 침대 이불로 들어가 숨는다.

밤비야!

침대 이불을 휘릭 제쳐 밤비를 쓰다듬는다.

밤비는 또 겁먹은 얼굴로 얼어서는

낮선 듯 낮설지 않은 윤희의 목소리와 손길을 마주했겠다.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반경 500m 이내 즉각 살처분,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빨간 상의를 입은 이들이 끌려와 비닐 위에 눕혀진다.
방역복을 입은 이들이 비닐을 씌우고 그 위로 흙을 덮는다.
다시 안내 방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났다. 살처분 반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든다. 현수막에는 “삶은 처분될 수 없다. 비인간동물 살처분에 반대한다”는 글귀가 크게 써져 있다. “인간이 아니라서 죽었다,” “우리도 살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보인다. 사회자가 멘트를 읊는다.

ii는 잠시 i의 방을 훑어보고는 냉장고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고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 둘 넣기 시작한다.

걸절이와 갓김치, 갓김치로 만든 김치찌침을 가장 안쪽에 넣는다. 손수 한 잡채를 넣고, 그 위에 숙주나물과 시금치, 애호박 무침을 올려놓는다. 이번에는 새로 우엉조림을 해보았는데 괜찮은 거 같다. 김치찌침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생두부도 따로 통에 담아 왔다. 비트로 담은 물김치가 좀 신 거 같지만 일단 넣어둔다.

ii는 i가 오후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냉장고도 거의 채운 터라 집에 들어오면 바로 먹을 만한 것들을 밖에 빼놓는다. 밥과 부친 두부, 데친 브로콜리, 물김치. 과일도 넣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 사과와 귤, 대봉, 바나나를 싱크대와 식탁 위에 올려 둔다. 찌 먹을 고구마와 찌서 가져온 밤도 있는데, 이것도 밖에 올려 둔다. 방앗간에서 새로 짜온 들기름도 한 칸에 둔다.

ii는 i가 빈 반찬통을 모아둔 노란색 이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선다. 지하철로 향한다. 양손에는 여전히 장바구니가 들려 있지만 가볍다.

“9월 20일, 이탈리아 경찰이 생추어리에 침입했고, 그 곳의 거주민은 돼지들을 살해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여 ‘살처분’을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소 농가에서는 ‘럼피스킨병’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했으며, ‘한우와 원유 수급 영향’을 염려합니다. 몇 일 전,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국가는 수많은 조류들을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은 육상동물부터 수생동물까지, 축산동물부터 수산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에 감금당한 동물들까지, 모든 비인간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생매장, 가스 살해, 독살, 폭행으로 인한 살해, 전기 도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구호 제창과 성명서 낭독, 연대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i의 카메라가 꺼졌다. 휴대전화 녹음으로만 현장을 기록한다. 시선이 자유로워진다. 모여서 발언을 하는 살처분반대 액션 모임의 모습과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며 액션을 보다 떠나는 사람들, 노숙인, 지나가며 냉소를 보이는 사람, 잠시 멈춰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사람, 발언 소리만큼 목소리를 키워 ‘분리수거나 잘 하라’고 외치는 사람 등, 여러 인파들이 살처분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 앞에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주치고 흩어진다.

액션이 끝났다.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이른 저녁을 먹으러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비건 식당으로 향한다. 자리에 함께 한 이들 대부분은 돼지 생추어리 돌봄을 돌아가며 함께 한 이들이다. 각자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생추어리에 가다 보니 현장에서 처음 본 사람들도 많다. 동행하는 내내 선한 기운들이 느껴진다. 한동안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부드럽게 풀어진다.

식당에 도착했다. 메뉴가 나왔다. 정갈한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비건이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i는 언제부터인가 ‘-이즘’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혹은 성취감보다는 한 칸에 무기력함 혹은 지난함과 같은 감정을 느껴오고 있다. 멋진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 수많은 행위들 중 하나일 뿐인.

i와 ii 단들이 영화관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함께 본 영화는 2019년 초에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다. i는 영화를 보다가 이전에 ii가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했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ii는 천안여고를 다녔다. 수학을 꽤나 잘 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성인이 되면서 대학에 가지 않고 서울로 와 중소기업의 경리직으로 일했다.

가족 앨범을 들춰본 적이 있다. 젊은 시절의 ii는 머리를 부풀려 멋을 내고, 어깨패드가 두툼히 들어간 정장핏 원피스를 입고 있다. 커다란 벨트로 조인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고 나뭇가지를 잡은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ii의 머리는 점차 지금의 숏컷으로 변한다. iii이 짧은 머리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했던가. 덜 익은 바나나 나무 아래에서 반팔 셔츠와 자주색 땡땡이 넥타이, 흰색 트라우저를 입고서는 포즈를 취한 ii의 모습이 귀엽다. 사진 몇 장을 골라 집으로 가져와 책상 한 칸에 놓은 포켓앨범에 담아두었다.

i 는 이도 저도 아닌 자신의 상태의 애매한 망설임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몇 마디를 꺼낸다.

비건에 대한 관심은 페미니즘 리부트 때부터인 거 같아요. 당시에는 당사자성에서 오는 분노의 연대감으로 공부를 하고 거리에 나섰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ii 가 화장실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다.
통증을 견디지 못해 앓는 소리가 밖으로 들려온다.
한참을 웅크리고 있던 윤희가 밖으로 나온다.

배를 움켜쥐다.

산부인과 의사에 의하면 ii 의 자궁에 혹이 크게 자랐다.
자궁근종을 축출해야 한다.
악성 종양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ii 의 배에는 종축으로 가로지르는 봉합선이 선명하게 남았다. ii 는 한동안 매년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나의 가해자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연루한 어떤 폭력의 지점들을 마주했어요. 교차성에
기반한 감각들이 확장하면서 비거니즘이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다큐나 책도 찾아보면서.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저의 행위들을 연결지어 왔는데 그
게 정말 맞나 질문하는 과정에 봉착했어요. 더 사소하고 개
인적인, 별 것 아닌 어떤 트리거들이 연결되고 중첩되어 지
금의 내가 된 게 아닐까 하는.

ii는 현재 간병인을 중개하는 일을 한다. ii에 의하면, 간병
인 대부분은 아시아 여성이다. ii의 카카오톡에는 매일같이
간병인협회 단체톡방에서 오는 메시지가 수백 개씩 쌓인
다. ii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중개하
는 간병인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중개해주는 환
자가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고, 간병인이 수당을 너
럭히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어 엄마.

이제 도착한 거야? 늦게 들어왔네.

생각보다 일정이 늦어져서.

그나저나 뭐 이렇게 많이 가져다 놓으셨어요? 고마워요.

매일 그 반찬이 그 반찬이지 뭐. 숙주나물이랑 시금치 먼저 먹어. 우영도 꼭 먹고. 맛있게 잘 됐어. 두부는 김치찌미랑 같이 해서 먹고. 또 뭐냐, 밤은 냉장고에 넣지 말고 먹어야 맛있어. 대봉은 아직 다 안 익었으니까 어디 창틀에다가 올려놓았다가 먹고, ……





· 미노 SUN
세베리아 잔디
보라 가는 꽃줄기
종횡 꽃잎이 즐비함.
인공리대 리본이다.

동물들의 공간에서 어떤 동물의 흔적은 사라져야 한다.
털의 흔적을 지우고, 냄새를 지우고, 소리를 지운다.

이 공간에 남아도 흔적은 무엇일까?
어떤 냄새와 소리는 남아도 되는 걸까?

i 는 7월부터 4개월 정도 새벽이 생추어리 보듬이 활동을 했다. 생추어리에는 농장과 실험실에서 각각 구조된 돼지인 새벽이와 잔디가 있었다. 매주 한 번씩 그들을 만나고 돌봄 활동을 하러 생추어리에 갔다. 처음 간 날에는 비가 왔다. 안 그래도 모든 것들이 생기 가득한 향을 뿜어내는 한여름에 비까지 오니 습기 가득한 화학물질들이 비강 곳곳에 스며들었다. 낮선 생추어리 공간과 축축한 진흙 냄새, 새벽이의 커다란 몸에서 나오는 냄새, 잔디의 아담한 몸과 듽성듬성 난 흰 털에서 나는 냄새들도. i 에게 생추어리의 기억은 그렇게 축축하고 쿼쿼한 냄새들로 남았다. 그 냄새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느껴졌다.

생추어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몸에 베인 생추어리에서의 냄새들을 지워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오면 바로 옷을 벗고는 세탁 세제를 넉넉히 따라 손빨래를 했다. 새벽이와 잔디에게는 당연한 환경이 i 에게는 불편하고 더러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i 를 무기력하게 했다. 우리는 모두 ‘반려종’으로서 함께 살자고, 함께 살며 벌어지는 문제들을 기꺼이 끌어안자는 말마저도 안일하게 느껴질 정도로. 같이 살 수 있을까? 정말?

몸은 어느덧 익숙해졌다. 매주 빨아서 끼던 장갑은 어느샌가 끼지 않고 맨손으로 밥과 물을 주고, 잔디와 새벽이의 몸을 만졌다. 보듬이 활동이 끝나고 냄새가 가득 베인 옷과 머리털과 몸으로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기도 했다. 그 사이 새벽이와 잔디에 대해 아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새벽이는 밥을 주러 가면 귀를 팔락팔락이며 달려온다. 정말 잘 먹는다. 큰 호박과 연근도 큰 이로 와그작 와그작 금세 먹는다. 무더위에는 풀이 죽어 있지만, 활기찰 때가 더 많다. 남성 패싱 인간들을 꽤나 경계한다고 하는데, i는 다행히(?) 해당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잔디는 한여름에도 뜨끈한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탄다. 기분이 좋으면 긴 꼬리를 빙글빙글 돌린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가 나면 밥그릇이건 물그릇이건 뒤집기 일쑤다. 잔디는 빗질 받는 걸 좋아한다. 새벽이와 잔디 모두 풀을 좋아한다. 특히 환삼덩굴, 칩, 쑥, 질경이 등등 다양한 풀들을 즐겨 먹는다. 그들은 풀의 냄새와 식감을 즐기는 거였을까?

‘나’의 몸냄새는 어떠할까? 고정된 체취라는 게 존재할까? ‘내’ 몸은 고정되어 있는 걸까? 온전히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태어난 직후의 몸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정된 ‘나’의 몸은 허상일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부서지고 침투당하고, 침투하며 유동하는 몸과 몸에 스민 체취. ‘향긋한’ 샴푸와 바디워시, 향수로 가린 날 것의 체취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어느덧 가리는 것이 당연해진 자신의 체취를 수치심 없이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소젓이 들어간 초콜릿과 비건 와인을 사왔다. 초콜릿과 와인을 들이키며 노트북을 켜다. 금세 초콜릿을 다 먹었다. 마라샹궈가 당기는 날이다. 주문앱에 들어간다. 가게 사장님에게 “비건 조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남기고는 주문 버튼을 누른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두덩이에 아이셰도우를 켜켜이 쌓는다. 아이뷰러로 눈썹을 올리고 그 위에 검정 마스크라를 입힌다. 연분홍빛 분을 세 손가락에 묻혀 볼에 문지른다. 지난 밤에 염두해 두었던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그 위에 검정색 스트링 원피스를 입는다. 검정색 스타킹으로 바지와 양말을 대체한다. 테를 살펴본다. 왼팔에 새긴 타투가 눈에 띈다. 안에 흰색 목티를 입고 그 위에 다시 베이지색 셔츠와 검정색 원피스를 입는다. 그 위에 카키색 긴 코트를 덧입는다. 머리는 아래쪽으로 모아서 당고머리를 만들어 묶는다. 푸른 잿빛의 머리를 싸맨다.

ii 동생의 딸 민의 결혼식. 일가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i는 자신으로 인해 ii가 초라해지지 않게, 어떤 털미도 잡히지 않게 ‘단정함’을 치장한다. 흐트러진 모양에 피어나는 수군거림을 미연에 방지한다. 식당 건물에 도착한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표기된 결혼식 안내문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민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민의 눈이 온화하다. 결혼 축하해.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의 한 시절을 함께 했던 이의 결혼은 친구나 동료의 결혼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꽤나 가깝고도 너무나 먼 사람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애정이나 아쉬움 혹은 과장이 깃든 축하는 자연스레 생략한다.

결혼식이 진행된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다. 분홍색 옷을 입은 민의 엄마와 푸른 색 옷을 입은 신랑의 엄마가 나란히 입장한다. 신랑이 인사를 하며 홀로 입장을 하고, 민은 그녀의 아빠와 함께 입장한다. 미소를 띤 민의 모습이 아름답다. 서약서를 낭독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느껴진다. 민의 아빠가 축사를 읽는다. 민의 친구들이 축가를 부른다. 민과 신랑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한다. 행진을 앞두고 사회자는 신랑에게 만세 삼창을 시킨다. 소리가 작다며 “민아 사랑해” 삼창을 다시 시킨다. 민과 신랑이 행진하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로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다. i는 가족 친지 사진 한 켠에 흔적을 남기고 밥을 먹으러 간다.

i 보다 세 살 많은 민은 어릴 적 HOT의 팬이었고 바람의 나라와 넷마블 게임을 즐겨 했다. 그 시절 i 는 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민이 여성이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좋아리 살을 빼야 한다며 좋아리를 주무르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서? 작고 단단한 손 모양이 싫었다. 원인 모를 열등감이었나.

신부 드레스 들어주는 사람이 드레스를 너무 많이 들더라.

신부가 살을 너무 많이 빼더라.

신부가 남자를 잘 몰았어.

신랑이 신부한테 잡혀 살 거 같은데, 신랑 긴장하고 있더라.

한 사람을 추녀 악녀로 만드는 것은 쉽다. 한순간이다.

껴입은 옷들이 서서히 몸을 조여올 즈음 민과 신랑이 연회장에 들어와 인사를 나눈다. 축하해. 고마워. 마주친 민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느껴진다. 그 정도의 감각. ‘우리’가 마주한 나날들 사이의 긴 공백이 느껴진다.

“세이렌은 노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이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세이렌의 노래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상상이 가능하지만, 세이렌의 침묵을 이긴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힘으로 세이렌을 이겼다는 자만심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싶는데 떠오르지 않아 입을 닫는 경우가 있다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침묵하기도 한다.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닫아버리는 입. 그 입은 주체적이다. 주체적인 침묵. 말을 아낌으로써 우아함을 유지하는 데는 평상시와 다른 모양의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집에 돌아와 초콜릿과 마라샹귀와 알코올을 부스트 삼아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긴장한 몸이 이완된다.

오디세우스가 기둥에 몸을 묶어서 세이렌들로부터 벗어났든,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고통스러워 하는 척 하며 통과했든, 스타벅스가 커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겠다는 포부로 인어를 로고에 그리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건 **세이렌들의 신호**이다. 반인반수의 몸부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호가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의 소리가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대이기 때문이다.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수한 웅얼거림과 비명과 흐느낌은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축축하게 젖어 들고, 뒤섞이며 고정된 좌표를 뒤흔든다.

세이렌들이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을 죽음으로써 끊임없는 갱신과 갱생을 이룬다.

삶과 죽음은 늘 서로 얽혀 있으며 미끄러짐과 동시에 새로운 목소리들이 다시금 꿈틀꿈틀 솟아난다.

‘나’의 목소리는 세이렌/하피가 울리는
메아리와 침묵 사이를 오고가며
그들의 일부가 되어 간다.



인간의 감각 너머에서 일종의 에너지장 혹은 무드 혹은 ‘없음(NULL)’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작고 사소한 것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혹은 주의를 기울여야 미세하게나마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신경조차 쓰이지 않기에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들 말이다.

그것들 가운데 누군가의 신경 혹은 레이더에 저릿하게 감각되는 순간, 이는 감각의 주체라 일컬어지는 존재에 의해 ‘노이즈’로 대상화되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분노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호기심을 가지거나,
여전히 없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단어가 아닌 단어 사이의 틈,
수 차례의 검토에서도 발견되지 못한 오탈자 혹은 에러,
표정과 표정 사이의 미세한 떨림,
말과 제스처의 미세한 부조화,
명료해질수록 미끄러지는 것들.

언제 어디서나 가시광선과 가청범위 바깥의 영역들은 함께 존재한다. 의미와 의미 사이를 쉽게 넘나들며 시적 횡단을 이루기도, 단어의 틈에 파고들어 의미를 내파하기도 한다.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안팎으로 끊임없이 파열되고 조율되는 불협화음이 자리한다. 이는 감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간과 공간을 허문다.

명료하게 떨어지는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틈을 벌리면서.

“귀하네요.”

정은은 i의 왼쪽 발등을 꼼꼼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은의 한 마디는 i의 몸을 훑고 간 어떤 수식어들보다도
단아하고 단단했다.

‘귀하다’는 말을 외투 삼아 몸을 감싼다.

귀한 감각의 씨앗을 몸 곳곳에 심어본다.

검푸르고 불그레한 주름의 틈에서 새로운 털이 솟아난다.

